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'09년 방카슈랑스 보험료 전년대비 12% 증가

- 2009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2.0% 증가한 11조 8,539억원을 시현함.
 - 업권별 보험료 수익은 생보사가 9조 5,780억원으로 전년대비 80.8% 증가하였으며, 손보사가 19.2% 상승한 2조 2,759억원으로 나타남.
 - '09.12월말 영업 중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은행 16개, 증권회사 21개, 상호저축은행이 80개로 총 117개임.
 -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건수로는 전년대비 1.7% 늘어난 641건으로 생보사와의 체결건수(363건)가 손보사(278건)에 비해 85건이 많음.

- 신계약 체결 시 납입하는 초회보험료 규모도 전년대비 12.1% 상승한 3조 5,306억원으로 생보사가 3조 2,104억원(90.9%), 손보사가 3,202억원(9.1%)의 보험료를 거수함.
 - '03.8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판매량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잠시 위축되었으나, 최근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판매실적이 회복세를 보임.
 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12.6%가 증가한 3조 4,436억원을 기록함.

-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 증가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는 6,283억원(생보사 4,442억원, 손보사 1,841억원)에 달하고 있으나, 이는 지난해 수수료의 지급재원이 되는 예정신계약비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9.5%가 감소한 금액임.

- 금감원은 최근 방카슈랑스 시장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이자율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쟁심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, 무리한 금리 경쟁 자제 및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을 촉구한다고 밝힘.
 - 불건전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 보험가입강요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발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임.

('09년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, 3/16)